

## 미련한 나무처럼

신윤식

세찬 바람이 제 몸을 뒤흔들고  
폭우가 제 몸을 때려도  
피하지도 않은 채  
무엇이 그리 그리운지  
자꾸만 하늘 향해  
길을 내어 뻗어간다

변변한 열매하나  
붙게 물든 꽃잎하나  
제 몸에 두지 못했지만  
부끄럽다 아니하며  
하늘만 바라본다.

눈부신 하늘 빛  
제 속 파헤침도 마다않고  
그 자리 그대로  
무엇이 그리 그리운지  
하늘 향해 뻗은 손  
거둘 줄을 모른다.

쉽터 찾아 날아드는  
참새도 마다않고  
양상한 그 몸조차  
말없이 내어주는  
넉넉함을 보이면서  
무엇이 그리운지  
하늘만 바라본다.

하늘에 뭐가 있기에  
하늘만 바라보는  
그는 그렇게  
미련한 나무처럼 살아간다.

# MATHETES

제23권

# 33

2015년 8월 16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55:8)

 **은석교회**  
GOSPEL EUNSEOK CHURCH

[www.onlycross.net](http://www.onlycross.net)

담임목사  
신 윤 식  
시무장로  
이영민 이성희  
협동장로  
조규현

주일오전설교

## 애가

겔 19:1-14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각 집에 매일 만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준 다음 그 결과를 관찰 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어서 현관에 만원을 놓고 나오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제 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의아해 하면서도 멈칫 멈칫 나와서 그 돈을 집어 갔습니다. 둘째 날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그 동네는 만원씩을 선물로 주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 쯤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에 까지 나와 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오는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언제 쯤 올 것인가 기다리게 되었고, 그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퍼졌습니다. 세 번째 주 쯤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쯤는 매일 만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세끼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 같은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

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내 돈 만원을 안 주는 겁니까?" 하고 따져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만원을 받는 일은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이 글에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현실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받은 것보다 부족하거나 받지 못했다 싶으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할 자기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은혜와 사랑에 배불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만 잘하면 은혜와 사랑은 무한 리필로 제공하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기에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배불러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자신에게 만원을 놓고 가는 사람에 대한 의아함이 시일이 지나면서 사라진 것처럼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에 대해 의아함은 사라지고 당연함과 권리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탐심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사랑을 팔아먹고 교인들은 돈을 내고 은혜와 사랑을 사서 자기 것으로 챙겨 은혜와 사랑이 당연한 권리가 돼 버린 현실에서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와 사랑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일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자기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요구할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고 해서 권리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와 사랑을 탐심으로 대한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은혜와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통으로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그들이 느낀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평은 무엇입니까? 18:30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지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복을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벌을 주시

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의를 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의를 행했는데 복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의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평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은 애가가 중심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고관들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가는 죽음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유다의 운명을 내다보면서 유다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에스겔에게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에스겔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에 끌려 왔지만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장송곡이라고 할 수 있는 애가를 부른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병들어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 장송곡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신을 아예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고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가수들도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병든 이가 있으면 어떻게든 위로가 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게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고통이 속히 끝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착각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기 이전 평화의 상태에 있었을 때 그들이 행복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평화의 상태에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항상 이방나라처럼 부강해지고 싶은 탐심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으로 인한 잠시 동안의 안도감일 뿐 또 다시 자신을 채우기 위해 힘쓰는 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교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네 어머니는 암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사자가 젊은 사자들 중에서 새끼를 길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삼하 7:14-16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데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전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계통의 왕위는 이 언약에 따라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암사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당시의 왕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의 새끼 사자는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킵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민족들이 그를 공격하여 함정을 파서 잡아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왕입니다. 이 일 후에 암사자가 다시 새끼 사자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웁니다. 하지만 이 사자 역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숩니다. 이런 그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치러 와서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게 넣고 갈고기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 왕위를 계승하여 11년을 다스린 여호야김왕입니다.

10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라는 말은 다윗 왕국 때의 유다의 번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하는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인 가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2절의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



**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났더니**” 라는 말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여 그 결과 자신은 두 눈이 뽑히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불에 타게 된 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의미하는 것은 유다와 왕들, 그리고 백성들의 운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14절의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부르는 애가이고 이 애가는 후에도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으로 인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왕을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해 줄 강한 가지는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영광의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헛된 꿈을 품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헛된 꿈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불만만 있을 것이고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자 했던 자신들의 악함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부르는 애가가 자신들이 부르는 애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보고 스스로 자기 죽음을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강한 가지는 등장하지 않

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원하는 나라로 회복하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게 할 강한 가지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을 따라 오실 강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오신 참된 강한 가지이며 다윗 언약이 낳은 참된 사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 힘 되는 것으로 일으킴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돈이 자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기고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참된 사자, 강한 가지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으로부터 멀어진 이유입니다.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힘을 가졌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은 자임을 안다면 세상 소유와 환경을 두고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음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으로, 강한 가지로 오신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인간의 탐심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간섭으로만 알게 됩니다. 인간의 탐심에 의한 은혜와 사랑은 모두 가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힘 있는 자 되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와 무관한 가짜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나의 죽음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잘라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며 나의 애가, 나의 장송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일오후설교

(7.19일 설교 74강)

## 세월을 아끼라

### 엡 5:15-17

14절에서 말하는 '잠자는 자'는 어둠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둠에 있기에 빛에 대한 감각이 없고 어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자신이 어둠의 존재라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을 어둠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잠자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어둠을 어둠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빛이 왔으되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빛이 옴으로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을 알게 된다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가 스스로 어둠을 알게 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했다는 것은 어둠을 어둠으로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어둠으로 보게 된다면 자신이 바로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착각한 오류를 보게 되면서 그동안 굳게 붙들었던 자신에 대한 모든 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없이 어둠을 본다는 것은 단지 성경 지식에 의한 판단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죄든 어둠이든 그 출발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즉 내가 어둠의 자식이라는 본질로부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옳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혹 여러분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해도 자기 지식에 의한 앞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은총임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앞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모든 출발을 자신에게 돌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해도 그 앞이 먼저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앞은 타인에 대한 판단과 지적으로 나와질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과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어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대한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15,16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고 말합니다.

세월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세월을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의 반대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시간을 아끼고 허비하는 문제를 교회와 연결하여 이해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이룰, 세상일은 나의 일로 구분하여 교회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을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교회 일보다는 세상의 내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요 6:28-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즉 교회 일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역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0,31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일을 언급하는 것은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는 표적을 보여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나라” (32,33절)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모세

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것처럼 예수님이 참된 떡, 생명으로 오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 교회 일로 이원화 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생명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행동이 없는 상태라 해도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일과 교회 일로 구분하여 교회 일에 힘쓰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곧 어둠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특정 행동에 의미를 두고 그것이 의가 되고 상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결국 어둠은 세상이 볼 때 빛으로 위장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빛이 아님을 참된 빛이 오셔서 증거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월을 아끼는 것은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예



정하셨음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열심히 믿어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은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있고 하늘의 영광과 생명에 속하게 된 것으로 모든 복과 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송이 전부입니다.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자 되게 해서 돈 바치게 하고 전도하게 해서 교인 수를 늘리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단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산 적이 없음을 고백하는 의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이 되게 하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뜻을 위해 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어둡이고 미련한 것이며 세월을 허비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아들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고 심판에서 건짐 받은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야말로 복이며 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었고 완성되었기에 그리스도를 떠나 존재할 수 없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충만과 완성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신자는 기쁨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수요일설교

(8.12일 설교 64강)

## 에서와 야곱

### 창 25:19-26

본문 앞에 언급된 이스마엘 족보를 보면 열 두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열 두 지도자로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로 인해서 열 두 부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20절에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스마엘의 자손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언급되는 것이 이삭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로 시작합니다. 이삭의 족보에 대해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삭이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지만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육십 세였습니다. 사십 세에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이십 년의 세월을 자식 없이 지낸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마엘은 열 두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부락을 세우고 지도자가 되는 번성을 이뤘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약속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했던 증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이삭의 번성하고 이스마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빈약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반대의 양상을 띠고 드러냅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대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마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은 단지 자손의 번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삭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은 약속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리브가의 임신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약속의 성취는 이

삭의 기도에 달렸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리브가의 임신은 이삭의 기도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초점을 ‘이삭이 기도했다’는 것에 두려고 하지만 그보다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리브가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지 10년 후에 사라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고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사라는 포기하고 가능성이 있는 하갈을 선택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인간적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행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한 것이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의해서 롯과 그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 롯을 포함해서 붙들려간 모든 사람을 구해온 일이나,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 전리품 십분의 일을 주면서 승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



하는 모든 행적들이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왜 아들의 문제에서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말을 하고, 하갈을 이용해서 아들을 낳는 방법을 이용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삶에서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하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삭을 낳은 후에야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쳤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 자신이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해도 2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리브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삭의 기도 없이 아들이 주어졌다면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신다는 의미만 강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보다는 '기다리면 되'라는 방식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님을 이삭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다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드리며 하나님만이 하신

다는 고백을 내용으로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도하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기도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과 함께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이 리브가의 태속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두 아들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새로운 문제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번성하고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약속 밖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계속 새로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성경을 안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안다면 그 삶 속에서 체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체험되어야 할까요?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머리에 담아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악한 자기 본성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서 나와지는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로 집약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건으로 집어넣으신다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침묵하신다 해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 칼럼

## 이단 144 - 아이합(국제 기도의 집, IHOP)

마이크 비클의 사역의 전략과 방향에는 항상 예언과 음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음성과 예언이 그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자신이 들었다는 계시의 음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용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마이크 비클만이 아니라 신사도운동가들에게도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이크 비클과 신사도운동가들에게서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이크 비클이 신사도운동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오늘날에 있어 예언과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에 계시된 하늘의 비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예언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음성을 듣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발생했고 그들로 인하여 성경이 왜곡되고 멸시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다.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에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무지한 우리가 말씀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잘못 보고 잘못 알게 된 것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성경의 도움이 아니면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없다. 성령으로 인해 성경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수정되는 이것이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개혁이다. 제도를 고치고 행위를 고치는 개혁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고침 받으며 다스려지는 개혁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합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단체다.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전부라면 큰 문제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말한 대로 어느 장소를 정하여 쉬지 않고 찬양과 기도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발상은 복음과 결코 같은 방향의 이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도와 찬양이 쉬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아이합의 사역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은사, 환상, 감동, 변화 그런 것들을 좇는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확실성을 두는 것이다. 이처럼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이것이 신사도운동가들이 추구하는 것임을 이미 신사도운동에 대해 언급 하면서 말한 바가 있다.

이들에게 첫 번째는 성경이 아니라 환상과 예언이다. 마이크 비클이나 또 다른 유사한 예언이나 감동이 오면 그것이 새로운 영적 질서가 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성경은 없다. 성경을 말하나 그들이 다스림 받는 것은 환상과 예언이기 때문이다. 환상과 예언을 따르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뭔가 되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환상과 예언에 더 집착하게 될 뿐이다. 환상과 예언, 치유 사역들은 마치처럼 일순간의 희락일 뿐이다. 아이합이 한국에는 지부를 두지 않았지만 아이합 한국인 사역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중등부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금요기도회 오후 7시30



## (총총잔대)

## 오늘의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움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 4:8-9)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전 예배

11:00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42장**  
교 독 문 **15(시27편)**  
기 도 **이성의 장로**  
찬 송 **445장**  
성경봉독 **골 19:1-14**  
설 교 **신윤식 목사**

## 애가 (41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341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7장**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기도 : 김종건 집사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오후 예배

14:30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94장**  
기 도 **장영대 집사**  
찬 송 **483장**  
성경봉독 **엡 5:22-33**  
특 송  
설 교 **신윤식 목사**  
**그리스도와 교회 (77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292장**  
주기도문 **다같이**

다음주일기도 : 박연희 집사

다음주일특송 : 이성희 장로

## 수요예배

19:30 인도: 신윤식 목사

창세기 65강

## 은석소식

1. 사람은 생각만으로 자신의 악함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건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악한 본성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생명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신자는 이렇게 믿음이 훈련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주소록을 새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게시판에 부착된 주소록을 확인하시고 전화번호와 주소 등 수정하거나 추가하실 내용 있으면 7자해 주시기 바랍니다.